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4.(목) 12:00
(지면) 2026. 6. 5.(금) 조간

마약 범죄,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다 국과수, 마약류 감정백서 2025 발간

- 역대 최다 14만여 건 감정, 신종마약류 비중 31.5% 급증
- 신종 펜사이클리딘류 3종 세계 최초 구조 규명 및 검출
- 10대 청소년층의 '합성대마' 남용 증가, 전자담배 형태 유통에 경각심 필요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은 국내 마약류의 최신 남용 추세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구축 및 예방을 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감정백서는 국과수의 방대한 마약 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마약류 유행 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 마약 감정 14만 건 돌파 역대 최다, 신종 마약 비중 31.5% 급증

백서를 통해 살펴본 2025년도 국내 마약류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5년 마약류 감정 종*수는 총 140,775건(소변 26,350건, 모발 35,993건, 압수품 78,432건)으로 집계되어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2023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 감정 접수 건 중 감정물별 의뢰된 시험항목 종류(예: 메트암페타민, 대마 등)

특히 압수품 감정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투약자 적발을 넘어 유통채 검거와 공급 경로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압수품 중 가장 높은 비중(52.7%)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신종 마약류의 비율(31.5%)도 두드러졌다. 특히 신종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 효과가 강한 합성대마류(15.1%)와 케타민(10.6%)이 주요 남용 물질로 확인되었다.

>> 10대 청소년 ‘액상 마약’ 남용 비상, 세계 최초 신종 물질 규명 성과도

2025년도에 나타난 국내 마약 관련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0대 청소년층의 신종 마약류 ‘합성대마’ 남용(364건)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속칭 '브랙'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흡사한 카트리지 형태로, 투약이 쉽고 심리적 접근 장벽이 낮아 청소년층의 초기 마약 유입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과수는 또한 케타민과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내는 펜사이클리딘(PCP) 계열의 변종 물질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해 국과수는 신종 펜사이클리딘류 3종*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검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신종 환각제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fluoro-2-oxo-PCPr), 2-옥소-피시피(2-oxo-PCP), 플루오로-2-옥소-피시아이피 (fluoro-2-oxo-PCiP)

>> ‘혼합 투약’에 따른 사망 위험 경고, 동물용 마취제 오남용 주의

최근 다종의 마약류를 섞어 투약하는 ‘혼합 투약’에 따른 급성 중독 및 사망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메트암페타민 중독사는 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합성대마를 다종으로 섞어 투약하거나 엠디엠에이(MDMA)와 케타민, 신종 펜사이클리딘류를 중복 투약하다 치명적인 복합 독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프로포폴 등 기존 수면마취제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동물용 마취제인 ‘메데토미딘’이 불법 유통·남용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동물용 마취제는 인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 시 호흡 억제나 심정지 등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www.nfs.go.kr) 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원장은 “과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위주였던 마약 범죄가 이제는 케타민, 합성대마 등의 신종 마약류로 다변화되고, 남용 연령층 또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백서를 통해 최신 분석 기법 고도화와 감시 체계 강화 등 신종 마약류 대응 기반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감정백서 2025 표지

담당 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과	책임자	과 장	최혜영 (033-902-5450)
		담당자	연구관	조지영 (033-902-5454)

